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운동선수들의 동기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지도교수 양 명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선 욱

2015年 8月

운동선수들의 동기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지도교수 양명환

김 선 욱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김선욱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김 미 예 (인)
위 원 양 명 환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2015년 8월

<국문초록>

운동선수들의 동기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김 선 욱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명 환

본 연구는 운동선수들의 동기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동기분위기와 결과변인인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운동선수 237명을 대상으로 다차원 스포츠퍼슨십 성향 척도, 스포츠상황에서 지각된 동기분위기 측정 검사지, 간편형 스포츠 도덕적 이탈 척도, 그리고 친사회적·반사회적 스포츠행동 척도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8.0, PROCESS for SPSS(V.2.13),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를 얻었다.

첫째, 동기분위기의 하위 요인인 수행분위기는 반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에는 유의한 부(-)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숙달분위기는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반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이탈에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수행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수행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넷째, 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숙달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다섯째, 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가설	7
4.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9
1. 동기분위기	9
2. 반사회적 행동	12
1) 스포츠 반사회적 행동	13
3. 친사회적 행동	14
4. 도덕적 이탈	18
5. 선행연구의 고찰	22
1) 동기분위기와 성취목표성향의 관계	22
2) 성취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23
3) 성취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도덕적 이탈의 관계	25
III. 연구방법	26
1. 연구대상	26
2. 측정도구	26
1) 친사회적 행동	27
2) 동기분위기	28
3) 도덕적 이탈	29
4) 반사회적 행동	30
3. 연구절차	31

4 자료 분석 및 처리	31
IV. 연구결과	33
1.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	33
2. 가설 검증	35
1) 수행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가설 1의 검증)	35
2) 수행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가설 2의 검증)	37
3) 숙달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가설 3의 검증)	39
4)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가설 4의 검증)	41
V. 논의	43
VI. 결론	48
참고 문헌	49
- 부 록 -	1

- 표 차례 -

표 1. Shields &Bredemeier(1995)의 스포츠퍼슨십의 규정	16
표 2. 설문지의 주요 구성내용	26
표 3. 스포츠퍼슨십 성향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27
표 4. 동기분위기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28
표 5. 도덕적 이탈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29
표 6. 반사회적 행동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30
표 7. 동기분위기,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및 도덕적 이탈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33
표 8. 수행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36
표 9. 수행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38
표 10. 숙달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40
표 11.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42

- 그림 차례 -

그림 1. 동기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6
그림 2. 동기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6
그림 3. 수행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모형	36
그림 4. 수행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모형	38
그림 5. 숙달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모형	40
그림 6.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모형	4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스포츠는 결과가 중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과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을 받기 마련이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규칙을 어기는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운동생활은 선수 개개인의 욕구나 만족, 개성과 행동 등이 무시된 획일적인 훈련을 통해서 집단의 목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훈련이나 집단생활은 선수개인의 운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도록 하며, 현재 자신의 위치나 성취정도를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뒤쳐져 있다고 느끼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마저 갖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 기대와 집단생활의 불만족감이 증가되어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고 부정적 일탈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Merton(1968)은 일탈행위를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와 규범, 규칙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정의하였다. 위의 정의는 결국 반(反)사회적 행동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탈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수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스포츠 활동은 일반적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의 내면화를 시켜주는 중요한 사회적 도구로서 인정받아오고 있다. 또한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적 행위를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받고 있다(구창모, 1991; 김관훈, 1988; 임변장, 1987; 정영린, 1987).

부정적 일탈행동은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스포츠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복용(도핑), 불법적으로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기만행위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Shields & Bredemeier, 1995). 더욱이 몇몇 사건들은 승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도덕적인 문제들을 유발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Orlick, 1978), 경쟁이 친사회적 행동을 줄이고(Kleiber & Roberts, 1981), 반사회적 행동을 증가(Kohn, 1986)시킨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반사회적 행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는 있으나 그 특징을 정의하여 보면,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행동을 일컫는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

를 보인다(김선욱, 양명환, 2013).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은 광의의 의미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행동을 의미한다(Kavussanu 등, 2006; Sage, Kavussanu, & Duda, 2006). 스포츠 도덕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된 목적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동안 무엇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구인은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이다. 도덕적 이탈은 관습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8개의 심리사회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8가지 메커니즘은 완곡한 라벨링, 도덕적 정당화, 유리한 비교, 책임분산, 책임전가, 결과왜곡, 비인간화, 비난귀인이다(Bandura, Barbarranelli, Capara, & Pastorelli, 1996; 노승현, 2011).

스포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메커니즘은 도덕적 정당화, 책임전가 요인이 있다. 스포츠에서 이러한 두 메커니즘의 사용은 양적연구(Broadley와 Kavussanu, 2007)와 질적 연구(Long 등, 2006) 모두에서 확인되고 있다.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는 불법행위가 가치 있는 사회적, 도덕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적,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발생한다. 책임전가(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압력이나 타인의 지시에 의해서 유발된 것으로 간주할 때 일어난다(Broadley & Kavussanu, 2010).

최근에는 스포츠에서 도덕적 이탈을 조사하는 연구가 출현하였다. Long과 동료들은 어린 엘리트 선수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스포츠에서 위반을 설명할 때 선수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도덕적 이탈을 종종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내었고(Long 등, 2006), Broadley와 Kavussanu(2007)는 도덕적 이탈을 단체 운동선수들이 주로 사용하고, 상대선수들에게 가하는 반사회적 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또한 김선욱, 양명환(2013)의 태권도선수와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도덕적 이탈이 반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덕적 이탈은 스포츠에서도 명백히 발생되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설명하는데 잠재적인 원인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친사회적 행동이 있다. Eisenberg 등(1989)은 친사회적 행동을 돕기, 나누기 등과 같은 타인을 돕거나 자발적으로 행하는 봉사적인

행동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동기는 외적 보상과는 관계가 없고 개인의 도덕적, 죄의식, 이성적 판단 및 정서의 영향으로 인하여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Eisenberg, 2006).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은 외적 보상과는 관계없이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중향, 2006).

스포츠 상황에서의 친사회적 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스포츠퍼슨십이 있다. 국내에서는 스포츠맨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스포츠퍼슨십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다. Vallerand 등(1997)은 스포츠퍼슨십을 규칙과 심판에 대한 관심과 존중, 사회적 관습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존중, 자신의 스포츠에 대한 헌신 및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등의 5가지 다차원적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Vallerand 등(1997)이 시도한 스포츠퍼슨십의 다차원적 개념화는 일련의 중단연구와 구조적 타당화 검증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Vallerand, Deshaies, Cuerrier, Brierd, & Pelletier, 1996; Vallerand, Deshaies, & Cuerrier, 1997; Vallerand & Losier, 1994). 특히 Vallerand 등(1996)이 개발한 다차원적 스포츠퍼슨십 성향 척도(the Miltidimensional Sportspersonship Orientations Scale; MSOS)는 스포츠퍼슨십의 이해와 측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성창훈, 2003). 최근 선행연구의 연구자들은 성취목표이론을 활용한 동기적 관점에서 스포츠퍼슨십을 다루고 있다(Batali, Zaxariadis, Adramerino, & George, 2005; Gano-Overway et al., 2005; Joyner & Kummert, 2005; Lemyre, Roberts, & Ommundsen, 2002; Ommundsen et al., 2003). 스포츠퍼슨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 상황에서 목표성향과 스포츠퍼슨십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자아목표성향이 속임수와 부정행위와 같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고(Duda, 2001; Duda & White, 1992; Roberts, 2001), 과제목표성향은 도덕적 태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Lemyre et al., 2002). 가령, Dunn과 Causgrove Dunn(1999)은 남자 하키선수의 과제목표성향이 사회적 관습과 헌신 및 규칙과 심판에 대한 존중을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냈고, 자아성향은 규칙과 심판에 대한 존중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Lemyre 등 (2002)은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이 높은 축구선수가 스포츠퍼슨십 차원들과 부적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한바 있다.

성취목표성향이론으로부터 파생된 몇몇 연구들(Ames, 1992; Nicholls, 1989)은 또 다른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서 지각된 동기분위기를 포함시킨다. 지각된 동기분위기(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는 개인들이 유능성 지향의 활동과 관련된 성취상황

내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인지되는 목표구조를 말한다(Duda, 2001). Ames(1992)는 동기 분위기(motivational climat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황적 목표구조를 개념화하고, 과제와 자아가 수반된 성취상황을 각각 숙달분위기와 수행분위기(경쟁분위기)로 정의하였다. 스포츠 현장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숙달 또는 경쟁을 강조하는 동기분위기를 수반한다. 지도자나 부모들이 대인적 경쟁, 규준적 피드백, 공적인 평가를 강조한다면 경쟁 분위기(competitive climate)가 조성되고, 과제의 향상과 숙달을 강조한다면 숙달적 분위기(mastery climate)가 조성된다. 성취목표 이론에 의하면, 동기분위기를 숙달분위기(과제목표)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쟁분위기(자아목표)로 지각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적응적 행동을 보인다고 예상한다(유진, 허정훈, 2001).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Kavussanu와 Roberts(2001)의 연구에서는 자아 중심적인 목표는 낮은 도덕적 기능 수준을 보이고 좀 더 낮은 인식의 스포츠퍼슨십 행동들을 인정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군다나 수행 중심의 분위기는 팀 규준에 있어 비도덕적인 것들에 의해서 관계되어있다고 나타났다. 반대로 분위기가 숙달적일 때에는 선수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상대방 선수들과 시합상황에서 단지 실력만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라 하였다. Bredemeier(1999)가 주장한 것처럼 숙달 분위기는 상대방 선수들과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좀 더 나은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겨루는 것이라고 한다. 또 숙달 분위기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지각하는 팀 규준의 발달을 이끌어 낼 것이다(Guiverneau & Duda, 1998). 만약에 지각된 동기 분위기가 수행 분위기라면, 선수들은 시합상황에서 더 나은 수행을 하기 위해 코치에 의해 압력을 받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코치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것이고, 상대방을 이기라고 주위에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선수들이 코치나 팀 동료들로부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Newton & Duda, 1999). 선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을 수행으로 지각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하고 규칙을 어기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습관화 하게 된다(Kavussanu et al. 2001).

이상과 같이 선행문헌을 요약하여 보면, 성취목표성향과 동기분위기와 스포츠퍼슨십의 관계(박중길, 2009), 스포츠퍼슨십, 운동태도, 성격특성간의 관계분석(양명환, 2003), 동기분위기와 도덕적 기능이 스포츠퍼슨십에 미치는 영향(문창일 등, 2011)등 스포츠퍼슨십에 대해서는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반대되는 개념인 반사회적

행동에 관련한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또한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인인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기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인지를 연구문제로 제기하여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운동선수들의 동기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스포츠퍼슨십)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동기분위기와 결과 변인인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스포츠퍼슨십)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다음<그림 1,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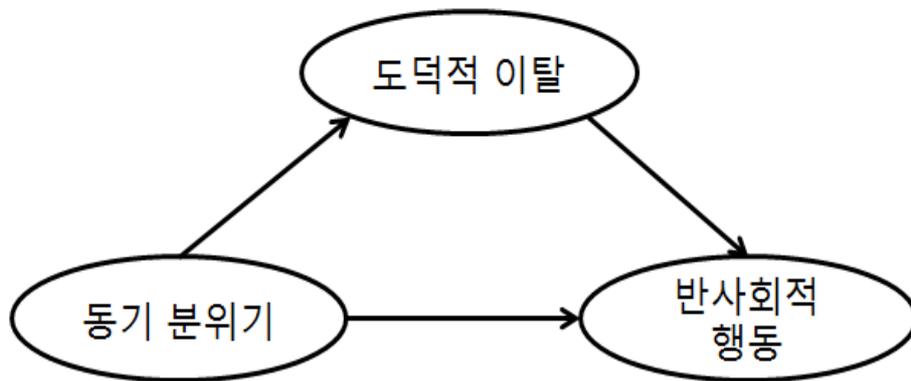


그림 1. 동기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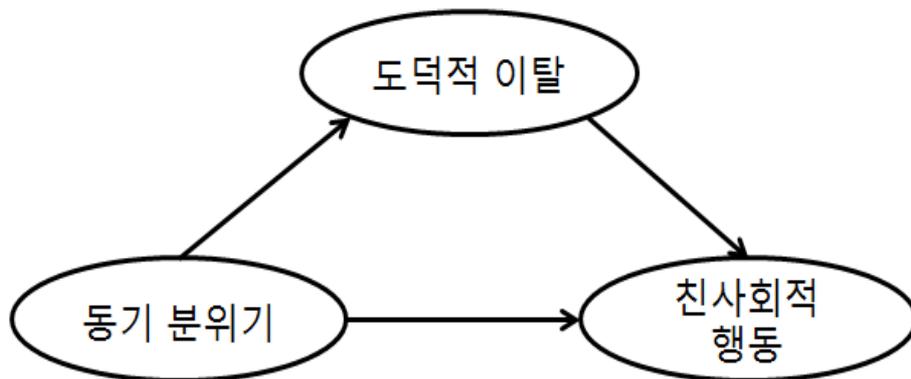


그림 2. 동기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동기분위기 하위요인인 수행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가설2. 동기분위기 하위요인인 수행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가설3. 동기분위기 하위요인인 숙달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가설4. 동기분위기 하위요인인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동기 분위기

동기분위기(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는 개인들이 유능성 지향의 활동과 관련된 성취상황 내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인지되는 목표구조를 말하며(Duda, 2001),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상황에서 코치의 분위기가 수행분위기(자아 관여적)인지 아니면 숙달분위기(과제 관여적)인지 여부에 따라 선수들이 느끼는 분위기를 의미한다. 수행분위기(자아 관여적)가 높은 것으로 기술되는 환경은 사회적 비교, 실수에 대한 처벌, 그리고 개인 내 경쟁구도 격려로 특징지을 수 있다. 숙달분위기(과제 관여적)에서는 수행과 관련된 진보가 자기 참조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며, 선택, 협동 및 개인적 노력이 강조된다(Ames, 1992; Newton, Duda, & Yin, 2000).

2) 반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행동을 일컫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행동을 의미한다(Kavussanu 등, 2006; Sage, Kavussanu, & Duda, 2006). 본 연구에서는 Kavussanu와 Broadley(2009)가 개발한 척도에서 얻은 문항(상대편을 해치려는 시도와 고의적으로 경기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부정행위와 심판에게 대들기, 등)을 토대로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은 그 동기가 외적 보상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도덕적, 죄의식, 이성적 판단 및 정서의 영향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Eisenber, 2006).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스포츠퍼슨십으로 지칭 하여 사용하였다. 스포츠퍼슨십은 스포츠인 다운 행위 혹은 스포츠에 참가할 때 스포츠맨이 취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양명환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Vallerand 등 (199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원칙도에서는 규칙과 심판에 대한 관심과 존중, 사회적 관습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존중, 자신의 스포츠에 대한 헌신 및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등의 5가지 다차원적 개념으로 규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차원적으로 구분하여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은 관습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8개의 심리사회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한다(Bandura, Barbarranelli, Capara, & Pastorelli, 1996). 8가지 메커니즘은 완곡한 라벨링, 도덕적 정당화, 유리한 비교, 책임분산, 책임전가, 결과왜곡, 비인간화, 비난귀인이다. 스포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메커니즘은 도덕적 정당화, 책임전가요인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Long 등, 2006; Broadley & Kavussanu, 2007).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당화와 책임전가 요인을 본 연구에 맞게 일차원으로 구분하여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동기분위기

성취목표는 성취 장면에서 개인의 믿음과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적 동기이다(Ames, 1992). 성취 맥락에서 많은 연구가 개인의 유능감을 판단하고 성공을 정의하기 위한 유용한 틀로서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의 목표 관점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과제목표성향은 과제 숙달과 개인적 향상과 관계가 있지만, 자아목표성향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최상의 수행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Todorovich, 2008).

스포츠와 체육에서 과제목표성향은 개인의 지각된 유능감 수준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참여의도(Wilson & Rodgers, 2004), 내적동기(Standage, Duda, & Ntoumanis, 2003), 성공이 노력과 연습에 의해 달성된다는 믿음(Vazou, Ntoumanis, & Duda, 2006)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자아목표성향에서는 유능감 수준이 낮은 경우에 성공이 높은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믿음과 비적응적인 정서적, 행동적 반응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Kavussanu & Roberts, 1996).

성취목표이론에서 동기분위기의 지각은 또 다른 중요한 구인으로 설명된다. 동기분위기는 학습의 목적과 본질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환경을 의미한다(Ames, Archer, 1987). 또한 Ames(1992)는 동기분위기를 주요타자에 의해 형성되는 학습 환경으로 과제와 자아 중심의 동기분위기로 구분된다고 정의하였다. 과제 중심의 동기분위기는 학습 환경이 학생의 노력과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통해 유능감을 느끼는 환경 즉, 숙달분위기를 의미하며, 자아 중심의 동기분위기는 타인과의 비교(승리, 월등함 등)를 통해 유능감을 인식하는 환경 즉 수행분위기를 일컫는다(Ames, 1992). 목표성향은 개인들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이며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자아목표성향을 띄고 있는 운동참여자에게 시합에서의 패배란 곧 자신의 운동능력이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동시에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함께 수반한다. 하지만 과제목표성향의 운동참여자에게 시합에서의 패배란 끈기 있게 다시 도전하고 부족한 기술에 대해서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의 내적 동기로 작용하며, 실패나 운동시합에서의 패배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으며 자기발전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김병준, 2001).

동기분위기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환경에 따라 숙달분위기와 수행분위기로 구분되는데 숙달분위기(mastery climate)는 노력과 과제숙달과 수행향상이 자기-참조적(Self-referenced)으로 정의되는 분위기이며, 수행분위기(performance climate)는 개인 간의 경쟁과 규준-참조적(norm-referenced) 성공을 강조할 때 지각된다(박중길, 2009).

Ames(1992)는 동기분위기를 상황적으로 일어난 심리적 환경으로서 행동의 목표 방향을 결정하는데 숙달분위기 지각은 과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만족, 높은 능력 지각과 내적동기, 도전적 과제 선택, 학습과정과 노력에 높은 가치 부여와 관련이 있고(Morgan & Carpenter, 2002), 수행분위기 지각은 지루함, 재미 부족, 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같은 부적응적 인지-정서적 반응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Ntoumanis, 2002; Spray, 2002).

교육장면에서 동기분위기를 숙달분위기로 지각한 학생들은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고 수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개인의 노력이 성공을 유도할 것이라는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기분위기를 경쟁분위기로 지각한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는 경향이 있으나,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실패를 능력부족으로 귀인 시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지혜, 2014).

학교 체육교육 장면에서도 교사변인은 학생들의 동기 분위기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숙달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에 학생들은 자아목표성향보다는 과제목표성향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easure & Roberts, 1995).

경쟁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스포츠 장면 역시 상황의 요구에 따라 숙달 또는 경쟁을 강조하기도 한다. 지도자나 부모들이 과제의 향상과 숙달을 강조한다면 숙달분위기가 조성되고, 대인과의 경쟁, 규준적 피드백, 공적인 평가를 강조한다면 경쟁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치들이 과제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지도를 많이 하고 처벌행동은 가능한 적게 하는 숙달분위기를 조성할 때 청소년들은 지도자를 더 높이 평가하고 팀 구성원들 역시 서로를 더 좋아하며,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정훈, 1998). 비록 경쟁적 스포츠 상황일지라도 지도자들의 성공에 대한 기준을 승리에 둔다면 경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기술을 숙달시키고 노력과 향

상을 강조할 때는 숙달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특히 연습상황에서 지도자나 부모 등이 하는 수행평가와 결과 피드백에 따라 선수들은 숙달 또는 경쟁 지향적 분위기를 지각 할 수도 있다.

최근 목표성향과 동기분위기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Roberts(1992)는 숙달과 수행의 특성적인 단서가 개인의 성취목표성향인 과제목표성향이나 자아목표성향보다 낮으면 목표성향들이 숙달과 경쟁의 분위기를 압도할 것이고, 반대로 상황적인 단서가 높으면 숙달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가 특성을 압도하여 개인들을 동질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는 상황적인 단서를 보다 강하게 하여 목표성향을 바꿀 수 있으며, 특히 성인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동기분위기를 구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Treasure & Roberts, 1994; Papaioannou & Diggelidis, 1996; Ommundses, 2006; Barkoukis, Ntmoumani, Ntoumanis, & Nikitaras, 2007).

또한 숙달 분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경쟁분위기에 있는 청소년들보다 신체 활동에 더욱 즐겁게 참여하고, 부정적 정서(불안)가 낮고, 수행이 높게 증가하며, 주어진 과제를 오래 지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유진, 박성준, 1995; 유진, 허정훈, 2001; Rudisill, Meaney, McDermott, Jibaja-Rusth 1990; Treasure, 1997).

문윤제(2005)는 초등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과 동기분위기 지각이 동기 수준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식 추구 내적동기는 과제목표성향과 숙달분위기 지각에, 성취 추구 내적동기는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 숙달분위기 지각에 영향을 미쳐 목표성향과 동기분위기 지각이 선수들의 동기 수준을 예측하는 변임임을 확인하였다(문윤제, 2005).

유진(1997)은 대학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성향과 동기분위기가 내적동기, 자긍심, 운동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과제목표성향과 숙달분위기가 스포츠에 대한 내적동기의 하위요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고 과제지향성과 숙달분위기는 자긍심과 운동수행에 각각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유진, 1997).

목표성향과 동기분위기 지각과의 관계를 다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성향의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은 각각 지각된 숙달분위기와 수행분위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반사회적 행동

심리학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를 직접적으로 내리기 보다는 반사회적 행동의 주체인 반사회적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의 정의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권석만, 2006).

교육학 용어사전에는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에 대한 정의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의 존재·규범·목적을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행동이라는 개념은 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규범에 동의하지 않고 사회질서를 직·간접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으로 개인적·집단적·조직적으로 유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2002).

정신의학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을 표현하는 용어는 부적응 행동, 이상 행동 등의 용어로 표현되나, 사회 병리학에서는 반사회적 행동, 비행 등으로 나타내고 있고, 교육학에서는 문제행동, 요선도 행동, 비행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용어의 개념이나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이상노, 1980).

Walker, Severson, & Feil(1995)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사회적 행동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이란 사회규범이나 사회관습을 위반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권위에 반항하여 그들에게 적대감과 공격적인 행동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발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이양희 등, 2001).

Loeber(1983)은 반사회적 행동을 “절도, 방화, 파괴, 거짓말, 무단결석, 가출 등과 같이 일련의 공격적 행동을 의미하며, 행동화, 외현적 행동, 품행장애, 비행과 같은 용어로 지칭된다”고 하였다(김태련 등, 1992).

이와 같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는 학문과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외현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 의도와, 반사회적 행동이 발생하게 된 상황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은 대인간의 상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자하는 의도와 동기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이나, 특정인을 목표로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행하는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반사회적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윤여운, 1998).

반사회적 행동 유형을 살펴보면, Loeber 등(1983)과 이연호(1987)는 절도, 거짓말, 도벽, 가출, 파괴, 방랑, 폭행, 무단결석, 낭비, 태만, 반항, 사기, 도박, 음주, 흡연, 약물복용, 방화, 성적비행 등과 같은 일련의 공격적 행동을 의미하며, 반사회적 행동 유형에 포함시켰다(윤여운, 1998 재인용).

Hinshaw & Anderson(1996)은 반사회적 행동을 충동성, 과잉행동성, 부주의성, 반항성, 공격성의 외현화 행동 패턴과 불안감, 위축 및 사고장애의 내면화된 행동 패턴, 혹은 공개적인 행동(공격적·반항적 행동)과 비공개적인 행동(절도, 사기, 약물남용, 기물파괴)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Richard 등(2004)은 반사회적 행동의 예로 신체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품행장애증상, 행동문제, 비행, 폭력행동, 조기위험성행동(early and risky sexual activity), 구금 등을 제시하였다(한정은, 2010).

반사회적 행동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 또는 사회적 법칙과 권위에 대한 도전 행위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기적이고 수용될 수 없는 모든 활동 즉, 극단적인 문제행동과 폭력, 범죄, 비행 등을 포함한다(김순양, 2010).

반사회적 행동의 유형을 종합해보면 반사회적 행동은 어떠한 상황과 행위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을 스포츠상황에서 의도적인 규칙위반이나 부정행위, 심판에게 대들기 등 스포츠 일탈 즉, 스포츠퍼슨십에 어긋난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1)스포츠 반사회적 행동

사회구성원 간의 규범적 합의의 존재와 규범위반으로서의 일탈에 대한 규정은 스포츠 상황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스포츠 일탈의 기준은 스포츠에서 적용되는 규범적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반사회적 행동이란 사회적 반사회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스포츠 자체의 규칙이나 가치뿐만 아니라 스포츠 자체의 규범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임변장, 2000; 한이석, 2004).

이와 같이 스포츠 반사회적 행동의 기준은 스포츠의 규범적 체계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스포츠에서 규범은 바람직한 가치 및 행동 유형을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규칙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참가 자격에 관한 규정, 경기 규칙 등과 같은 법적 규범, 스포츠퍼슨십과 같은 도덕에 관한 규칙으로 구분된다(부기원, 조명렬, 1988).

스포츠 상황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공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스포츠 상황에서는 선수, 코치, 트레이너 등 성공이란 곧 승리를 의미한다. 사회에서는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경로나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스포츠에서는 승자와 패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코치나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김광기, 2001). 따라서 이와 같이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반사회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에는 약물복용, 폭력, 부정행위, 도박, 승부조작, 의도적 과잉공격으로 인한 상해, 부정선수, 심판관정 항의, 시합거부, 연습거부, 선수혹사 등 다양한 규범위반 행동이 포함된다(임번장, 2000).

선행연구를 통해 스포츠 현장에 나타나는 반사회적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상대편을 해치려는 시도와 고의적으로 경기규칙을 위반하는 행위(Kavussanu, Seal, & Phillips, 2006), 부정행위와 심판에게 대들기(Shields, Bredemeier, LaVoi, & Power, 2005), 기능 수준이 낮은 동료선수들을 놀리는 행동(Shields, LaVoi, Bredemeier, & Power, 2007), 심판을 속이기 위하여 부상당한 것처럼 행동하기(Long, Pantaleon, Btuant, & d'Arripe-Longueville, 2006)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스포츠 반사회적 행동을 찾아볼 수 있다.

3.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Walsh(1980)는 친사회적 행동을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오는 건설적인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Eisenberg 등(1989)은 친사회적 행동을 돕기, 나누기, 위로하기 등과 같은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의도를 가진 자발적이며 봉사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그 동기가 외적 보상과는 상관이 없지만 개인의 도덕적, 죄의식, 이성적 판단 및 정서의 영향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뜻하며, 반면 이타적 행동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어 외적인 보상은 물론 의무감, 죄의식 등과도 상관없

이 자신을 희생하며 행하는 행동이라 하였다(Eisenberg, 2006). 종합적으로 볼 때 친사회적 행동은 외적 보상과는 관계없이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은 스포츠퍼슨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학자들이 스포츠퍼슨십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정의는 비슷하지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명환, 등(2005)은 "스포츠인다운 행위 혹은 스포츠에 참가할 때 스포츠맨이 취하는 행위"로 스포츠퍼슨십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김중선(2005)은 스포츠퍼슨십을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행동방식으로써 모든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터득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인 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종률(2003)과 임석원(2003) 역시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들은 스포츠퍼슨십이 페어플레이 정신과 유사하게 사용된다고 말하였으며, 스포츠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성창훈과 김원배(2000)의 연구에서는 선수들이 지각하는 스포츠퍼슨십의 개념을 페어플레이나 공정성과 같은 단일적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특수 차원들이 통합된 본질적 다차원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스포츠퍼슨십이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1926년에 스포츠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생활에 스포츠인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맨십 친목회(Sportsmanship Brotherhood)가 조직되었다. 협회는 여덟 가지 규칙을 구성하였는데, ①규칙을 준수할 것 ②동료와 신뢰를 지킬 것 ③건강을 유지할 것 ④화내지 않을 것 ⑤거칠게(야만적으로)경기하지 말 것 ⑥승리에 있어 자부심을 가질 것 ⑦패배에 있어 굳은 마음을 가질 것 ⑧건강한 육체 속에 건전한 정신과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것이 그것이다(Keating, 1964). 협회가 원하는 스포츠퍼슨십은 "승리만을 노리는 스포츠경기가 아닌 어떻게 경기를 진행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경기에 있어서 승리만을 노리는 승리지상주의는 과도한 훈련이나 경쟁을 유도하여 선수의 정신과 육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기 때문에 스포츠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러한 승리지상주의를 지양하며, 진실하고, 용기 있고, 인내할 줄 알고,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스포츠퍼슨십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스포츠퍼슨십은 스포츠 도덕성의 중요한 요소로써, Shields & Bredmeier(1995)는 스

스포츠퍼슨십이 도덕적 가치관과 전략적 승리가 대립해 있을 경우 도덕적 가치관이 더 우월하다는 그런 경기자세가 승부욕이 강한 경기에서도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스포츠퍼슨십의 설문지를 제작하여 원인분석 결과 스포츠퍼슨십은 5가지 요소로 나타났다.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관심 영역	스포츠퍼슨십 행동	비 스포츠퍼슨십 행동
심판에 대한 행동	적절한 방법으로 심판에게 질의(가령, 지정된 사람만이 심판에게 항의)	심판과 다툼 심판에게 욕설
상대방에 대한 행동	항시 모든 상대방에게 존경과 위엄으로 대함	상대방과 다툼 상대방에게 빈정대는 말을 함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함
동료에 대한 행동	긍정적인 격려와 건설적인 비판을 해줌	부정적인 언어나 빈정담 동료들과 다투거나 욕을 함 관중들과 다툼
관중에 대한 행동	관중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함	관중들에게 욕하고 부정적인 언사를 함
규칙준수와 위반	모든 경기의 규칙을 따름	규칙 안에서 도망갈 거리를 이용 (예: 모든 아동들이 시합해야한다, 그래서 코치는 능숙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에 아프다고 이야기한다.)

<표 1> Shields & Bredemeier(1995)의 스포츠퍼슨십의 규정

연구자들은 선수들이 규칙과 심판, 사회적 관습과 상대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뿐 아니라 경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스포츠 참여가 부정적인 면으로 갈 경우 불참하는 것들을 스포츠퍼슨십이라고 정의하였다(Vallerand 등 1997). 이러한 시도들은 스포츠퍼슨십을 연구하며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정의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Vallerand 등(Vallerand, Deshaies, Cuerrier, Briere, & Pelletier, 1997; Vallerand, Briere, Banchard, & Provencher, 1997)은 스포츠퍼슨십의 개념정의, 그리고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portpersonship Orientations Scale: MSOS)는 스포츠퍼슨십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이들은 스포츠퍼슨십은 주관적 개념이지만 보다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실존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고 스포츠퍼슨십의 실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선수들을 대상으로 사회심리학적인 개념을 탐색하였다. 여기에서 스포츠퍼슨십은 스포츠에 대한 헌신과 몰입행동, 규칙과 심판을 존중하는 행동, 사회적인 인습을 존중하는 행동,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 승리 집착적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의 5가지 내용 구조를 갖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도 스포츠퍼슨십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장훈(2003)은 Vallerand 등 (1997)이 개발한 다차원 스포츠퍼슨십 성향척도(Multidimensional Sportpersonship Orientations Scale: MSOS)를 변안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8개 요인으로 구성된 29문항의 한국형 다차원적 스포츠퍼슨십 성향척도(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Sportpersonship Orientation Scale : KMSOS)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해서 확정된 8개요인들 중 운동몰입이나 최선, 상대존중, 판정 및 결과인정, 승부집착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은 개념적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Vallerand 등 (1997)의 MSOS 문항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상황에서 도덕성의 표상인 스포츠퍼슨십은 단순히 스포츠나 신체활동 참가를 통해 자동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입각한 가치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양명환,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퍼슨십은 경기장 내의 선수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선수를 비롯하여, 지도자, 심판, 경기임원 그리고 관중까지 더 나아가 실제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도덕적 가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는 엘리트선수들에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왜냐하면 엘리트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생활을 하는 모든 부분이 스포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과 코치가 선수를 지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스포츠퍼슨십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퍼슨십은 선수들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도와줄 것으로 사료된다.

4. 도덕적 이탈

Bandura 등(1996)은 도덕적 행동을 개인의 내적인 자기규제기제(self-regulatory mechanism)에 의해 통제되며 즉, 스스로 부과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 가치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되며, 자기 비난이나 처벌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행동은 억제하는데 이러한 정서적 자기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 도덕적 인지이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Bandura(1991)는 자기규제기제의 기본과정인 도덕적 인지가 왜곡이 되면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이 초래하게 되어 자기규제기제의 행동 통제기능이 방해를 받는다고 제시하였다(Paciello, Fida, Tramontano, Lupinetti, & Caprara, 2008). 도덕적 이탈은 유해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도덕적인 면책을 받아들임으로써 초래되며, 이러한 자기면책은 다양한 인지적 왜곡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행동’과 ‘행동의 결과’ 및 ‘행동의 피해자’와 ‘개인적 책임감’에 대해 인지적 재해석을 하여 자기 자신이 저지른 도덕적 이탈행동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 하는 것이다(김경연, 하영희, 2003).

Bandura 등(1996)은 도덕적 이탈을 관습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8개의 심리사회적인 메커니즘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지적으로 이탈행동을 자비로운 행동으로 재구조화하도록 해주며, 도덕적 관습에 거슬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적 책임을 최소화시켜준다. 그리고 이탈행동으로부터 파생되는 불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거짓 설명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인성이나 행위를 비난하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Bandura, 1991). 8가지 심리사회적인 메커니즘은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 완곡한 라벨링(euphemistic labeling), 유리한 비교(advantageous comparison), 책임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 책임전가(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 결과왜곡(disregard or distortion of consequences), 비인간화(dehumanization), 그리고 비난귀인(attribution of blame)으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andura, 등 1996; 노승현, 2011; 김선정, 2014).

1)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도록 정당화하는 것이다. 개인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목적 하에 사회적,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할 때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즉,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게 고통을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정당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도덕적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피할 수 없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완곡한 라벨링(euphemistic labeling)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다 완곡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명명되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가 다르게 보여 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따라서 부적절한 면을 포괄하고 있는 언어 대신, 완곡한 언어를 선정함으로써 해로운 행동을 모양새 좋게 만든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감면시키는 역할을 한다.

3) 유리한 비교(advantageous comparison)는 특정 행동이 다른 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자신의 나쁜 행동을 더 나쁜 행동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 보다 자신의 행동이 덜 나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인지적 구조이다. 악명이 높고 비인간적인 것과의 대조를 통해, 자신들의 나쁜 행동은 마치 호의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4) 책임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은 자신들의 분류된 직무(division of labour)에 의해 분산 될 수 있다. 자신들의 하는 일이 세분화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특정한 직무로 주의를 이동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분화 된 직무(subdivided tasks)들은 그 자체로는 무해한 것처럼 보이게 되며, 결국 사람들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도 실질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5) 책임전가(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기 보다는, 권위에 의한 지시(dictates of authorities)로 책임을 대체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가 해로운 결과를 인정할 때 도덕적 통제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본다면, 책임전가를 보이는 개인의 성향은 그 개인이 자기 비난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돕는다.

6) 결과왜곡(disregard or distortion of consequences)은 잔혹한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이 저지른 해로움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거나, 이것을 축소하거나 무시, 왜곡을 통하여 자기 비난의 이유를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다. 즉, 개인행동의 해로운 결과는 무시되고, 축소되며, 왜곡 혹은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며, 자기 비난을 활성화 키시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7) 비인간화(dehumanization)는 자기 비난의 강도는 가해자가 학대를 행한 대상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뜻한다. 한번 비인간화된 사람은 더 이상 느낌과 소망, 염려 등을 가진 개체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 이하의 것으로 여기게 된다.

8) 비난귀인(attribution of blame)은 적이 되는 상대나 환경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면제(self-exonerating)를 유리하게 돕는데,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죄 없는 희생자로 여긴다. 자기-면제는 개인의 해로운 행동이 자신의 개인적 결정이 아닌, 불가항적인 환경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더 강력한 폭력에 대해서도 심지어 도덕적 정당성을 찾으려 도와준다.

이러한 8가지의 심리사회적 메커니즘을 통해 도덕적 이탈의 정도가 높을수록 일탈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며, 이 도덕적 이탈 모델은 지금까지 제시한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주목받고 있으며(곽금주, 1998; 박영신, 김의철, 2001a; 박영신, 김의철, 2001b;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Kim & Park, 2006), 도덕적 이탈과 비도덕적 행동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곽금주, 1998;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도덕적 이탈은 수많은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탈리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구인을 연구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에서 Bandura 등(1996)은 도덕적 이탈이 싸움,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기, 다른 아동에게 언어적 폭력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또한 절도, 사기, 거짓말, 파괴, 무단결석, 마약과 알코올 남용 등과 같은 비행 행동과도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도덕적 이탈과 사회적인 관습에 거스르는 행동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Bandura, Caparara, Barbaranelli, Pastorelli, & Regalia, 2001), 약자를 괴롭히는 것과 죄수들의 사회적 지위의 중요성 지각과도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South & Wood, 2006)이 확인되고 있다.

스포츠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메커니즘은 도덕적 정당화, 책임전가 두 요인으로 질적연구(Long 등, 2006)와 양적연구(Broadley와 Kavussanu, 2007) 모두에서 확인되고 있다. 도덕적 정당화는 불법행동이 가치 있는 사회적, 도덕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발생한다. 스포츠에서의 일례로는 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협하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책임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는 사회적인 압력이나 타인의 지시(코치, 감독 등)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할 때 일어난다. 스포츠에서의 일례로는, “코치가 상대선수에게 부상을 입히도록 명령을 해서 상대선수에게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하는 선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Broadley & Kavussanu, 2010). 최근 스포츠현장에서 도덕적 이탈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도덕적 이탈은 팀 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적 이탈은 청소년 선수들의 자기보고한 연구에서도 불법적인 약물복용의 빈도와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ucidi, Zelli, Mallia, Grano, Russo & Violani, 2008).

5. 선행연구의 고찰

1) 동기분위기와 성취목표성향의 관계

목표성향과 동기분위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행동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동기의 역동적 모델(Roberts, 1992a)은 과제 지향적인 개인이 숙달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높은 성취동기를 보이며, 자아지향적인 개인은 수행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최적의 성취동기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유진 등, 2001).

Roberts(2002)는 숙달과 경쟁의 특성적인 단서가 강하면 개인의 특성은 과제목표성향이나 자아목표성향이 지배할 것이고, 반대로 상황적인 단서가 강하면 숙달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가 특성을 압도하여 개인들을 동질화 시킨다고 하였다(박영기, 2012).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Nicholls(1989)는 목표성향과 동기분위가지각의 상호작용이 성취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문윤제, 2005).

Treasure와 Roberts(1989)는 과제목표성향과 숙달분위기의 상호작용이 만족감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목표성향과 수행분위기의 상호작용은 성공의 원인이 능력이라는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영기, 2012).

유진(1994)은 대학생들의 체육수업에서 목표성향과 동기분위기의 상호작용이 내적동기 즉, 흥미와 노력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조수연 등(2009)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수업 장면에서 성취목표와 지각된 동기분위기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는 과제목표성향은 학생과 교사의 숙달분위기 지각과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자아목표성향은 학생의 경쟁지향과 노력 없는 수행분위기와 강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현경(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교 무용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분위기 지각과 목표성향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1, 2, 3학년을 제외하고 4학년 학생들만이 연습시 숙달분위기를 지각할 때 과제목표성향을 추구하는 반면, 수행 분위기를 지각할 때 자아목표성향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1, 2학년의 경우 무용 연습 자체에 흥미를 갖고 있어도 교수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연습과 공연준비에 참가해야하는 압박감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참여하게 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수로부터 받는 피드백이나 기술이 익숙해지고 자신의 진로를 위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윤제(200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목표성향과 동기분위기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수행분위기 지각은 전체 대상자 모두 과제목표성향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숙달분위기 지각은 남자 선수들에게만 과제목표성향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선수들이 연습이나 시합 상황에서 지각하는 동기 분위기와 개인의 목표성향과의 상호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다. 선수들이 지각하는 분위기가 숙달분위기면 개인의 목표를 중시하는 과제목표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자아목표성향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수들이 지각하는 분위기가 수행 분위기라면 자아목표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과제목표성향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목표성향과 동기분위기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성취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성취목표성향 이론에 의하면 과제목표성향이 높을수록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며 실패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실력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고, 팀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동료들을 배려하고 자신보다는 팀을 우선시 함을 의미한다. 자아목표성향이 높은 선수들은 승리나 상대방보다 비교우위에 초점을 두고 정의나 공정성을 무시하거나 상대의 안녕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취 목표성향 요인 중 과제목표성향은 친사회적 행동과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아 목표성향은 친사회적 행동과 부(-)²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성철 등(2013)의 연구에서는 방과 후 축구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제목표성향과 우리성,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학생의 과제목표성향은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¹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참여 학생의 우리성은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¹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과제목표성향은 우리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과 인과관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축구교실 참여자의 과제목표성향은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훈 등(2011)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남자 축구 및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성취 목표성향과 기본심리적 욕구, 스포츠퍼슨십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에서 성취 목표성향과 스포츠퍼슨십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과제목표성향이 높을 때는 운동몰입, 최선, 상대존중, 동료배려, 팀 정신, 결과인정 등에 긍정적으로 나타나지만, 자아목표성향이 높을 때는 승부에 집착하고 관정존중 등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제목표성향은 스포츠퍼슨십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며, 자아목표성향은 스포츠퍼슨십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봉혜 (2005)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퍼슨십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결과는 개인의 성취목표성향은 특정 활동에 대한 신념이나 특정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행동의 지각과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아목표성향의 스포츠 참가자들은 성취의 의미를 스포츠 활동 자체에 두기보다는 승리나 상대방보다 우월한 수행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우월 추구는 스포츠퍼슨십 행동에 대한 부적인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과제목표성향이 강한 참가자들은 상대방을 이기려하기보다는 규칙을 준수하고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며 팀 정신을 가치롭게 내면화 할 것이라 하였다.

박중길(2009)의 대학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과 동기분위기 지각이 스포츠퍼슨십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에서도 과제목표성향과 숙달분위기 지각이 운동선수들의 스포츠퍼슨십에 영향을 예측하는 변수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과제목표성향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자아목표성향은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목표성향 보다 과제목표성향이 운동태도와 신체활동 가치와 같은 도덕적 기능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국외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Duda, et al., 1991; Lee, Whitehead, Ntoumanis, & Hatzigergiadis, 2008; Nichools, 1989). 따라서 자아목표성향이 강한 선수는 경쟁상황에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이 높고, 과제목표성향은 페어플레이와 공정성 등과 같은 도덕적 행위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Duda, Olson, & Templin, 1991; Dunn & Causgrove, Dunn, 1999; Lemyre, Roberts, & Ommundsen, 2002; Sage & Kavussanu, 2007; Sage, et al., 2006).

3) 성취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도덕적 이탈의 관계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퍼슨십 간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는 많으나 반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이탈과의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목표성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농구선수들(Duda, Olson, & Templin, 1991; Kavussanu & Roberts, 2001)과 아이스하키선수(Dunn & Dunn, 1999)들의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것과 상관이 있었으며, 성인 럭비 선수(Todd & Hodge, 2001)의 낮은 도덕적 추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제목표성향은 스포츠퍼슨십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uda et al., 1991; Dunn & Dunn, 1999).

또한 자아목표성향이 비신사적인 행동, 낮은 수준의 도덕적 의식, 반사회적 행동과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Duda 등, 1991; Kavussanu, 2006; Kavussanu & Roberts, 2001; Sage & Kavussanu, 2007, 2008; Sage 등 2006)와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도덕적 이탈이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ardley & Kavussanu, 2010).

국내 연구의 경우 김선옥, 양명환(2013)의 태권도와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아목표성향은 반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이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성취목표성향 중 특히 자아목표성향이 스포츠의 도덕적 기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제목표성향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진 못하지만, 자아목표성향이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 및 도덕적 판단과 의도 등의 다양한 도덕성 측면과 분명하게 상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5년 대한체육회에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선수로서 2015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운동선수와 시합 및 전지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중·고·대학부 선수를 선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표집방법은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유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질문지는 260부가 회수되었으나, 반응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응답과 무기입 된 자료 23부를 제외한 237명의 자료만을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남자 선수 181명, 여자 선수 56명으로 총 23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인구 사회적 특성 4문항, 스포츠퍼슨십 성향 11문항, 동기분위기 27문항, 도덕적 이탈 11문항, 반사회적 행동 13문항으로 총 6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도구의 출처 및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설문지의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1) 학교급간(1), 종목(1), 경력(1)	4
친사회적 행동	스포츠퍼슨십 (11)	11
동기 분위기	숙달분위기(14), 수행분위기(13)	27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11)	11
반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13)	13

1)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퍼슨십 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스포츠퍼슨십 성향척도는 Vallerand, Briere, Blanchard & Provencher(1997)가 개발한 다차원 스포츠퍼슨십 성향척도(Multidimensional Sportspersonship Orientation Scale : MSOS)를 번안하여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5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포츠에 대한 전념, 규칙과 심판판정 존중, 사회적 관습 존중, 상대방 배려, 승리집착에 따른 부정적 행동의 5가지 하위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요인 11문항으로 구성하여, 자료에서 얻은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나는 실력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스포츠퍼슨십 문항 중 1문항이 제거되어 총 10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카이제곱 값을 제외한 Q값,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값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chi^2=71.991$, $df=29$, $p=.000$, $Q값=2.482$, $TLI=.893$, $CFI=.931$, $RMSEA=.079$).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80$ 으로 나타났다.

표 3. 스포츠퍼슨십 성향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 인	문 항	요인적재치 1	공통분
스포츠 퍼슨십 성향	2. 나는 여러 차례 실수 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698	.487
	1. 나는 실력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다.	.662	.439
	11. 나는 심판의 잘못된 판정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한다.	.636	.405
	10. 나는 판정오류 시에도 심판 의견을 존중한다.	.621	.386
	3. 나는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614	.376
	4. 시합 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577	.333
	8. 나는 매 시합 결과에 승복한다.	.574	.330
	7.나는 내 자신의 결과나 잘못을 인정한다.	.571	.326
	6. 나는 비록 시합에 졌지만 상대선수를 축하해 준다.	.557	.310
	9. 나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지 않는다.	.492	.242
KMO의 표본적합도=.804		고유치	3.63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657.460		공통분산%	36.352
df=45, p<.000		누적분산%	36.352
Cronbach's Alpha			.799

2) 동기 분위기

동기분위기는 Newton, Duda 및 Yin(2000)이 스포츠상황에서 지각된 동기분위기라는 심리특성을 조사한 연구를 통해 개발한 척도(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2, PMCSQ-2)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맞게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 팀 코치는 선수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시험해 보길 원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많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숙달분위기 문항 중 5문항, 수행분위기 문항 중 6문항이 제거되어 총 16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카이제곱 값을 제외한 Q값,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값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chi^2=143.857$, $df=103$, $p=.005$, Q값 =1.397, TLI=.958, CFI=.964, RMSEA=.041).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숙달분위기는 Cronbach’s $\alpha =.83$, 수행분위기는 Cronbach’s $\alpha =.84$ 로 나타났다.

표 4. 동기분위기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 인	문 항	요인 적재치		공통분
		1	2	
수행 분위 기	21. 우리 팀에서는 최고 수준의 선수들만이 코치의 주목을 받는다.	.765	-.181	.618
	15. 우리 팀에서는 스타선수들만이 칭찬을 받는다.	.750	-.172	.592
	3. 우리 팀 코치는 스타선수에게 모든 신경을 쏟는다.	.719	-.099	.527
	23. 우리 팀 코치는 다른 선수들보다 특정선수들을 더 좋아한다.	.707	-.192	.536
	6. 우리 팀 코치는 스타 선수들만이 팀 성공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657	-.177	.462
	2. 우리 팀 코치는 선수들이 실수 할 때 거의 미쳐버린다.	.631	-.050	.401
	16. 우리 팀 선수들은 실수를 하였을 때 벌을 받는다.	.598	-.079	.363
	13. 우리 팀 코치는 실수한 것 때문에 선수들에게 소리를 지른다.	.567	.022	.323
숙달 분위 기	26. 우리 팀의 모든 선수들은 중요한 팀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178	.723	.555
	17. 우리 팀에서 모든 선수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83	.720	.552
	7. 우리 팀 선수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였을 때 만족하다고 느낀다.	-.047	.720	.520
	10. 우리 팀 선수들은 서로 기술 익히는 것을 도와준다.	-.095	.705	.505
	14. 우리 팀 선수들은 자신들의 기량이 향상되었을 때 성공적이라고 느낀다.	.119	.636	.418
	9. 우리 팀 선수들은 기술수준에 관계없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135	.627	.412
	5. 우리 팀 코치는 우리 모두가 팀 성공에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224	.615	.428
	18. 우리 팀 코치는 선수들에게 서로 도와주도록 격려한다.	-.165	.615	.405
KMO의 표본적합도=.883		고유치	5.077	2.54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1225.562		공통분산%	31.733	15.882
df=120, p<.000		누적분산%	31.733	47.614
Cronbach’s Alpha			.840	.834

3)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 척도는 Boardley와 Kavussanu(2008)가 개발한 간편형 스포츠도덕적이탈 척도(Moral Disengagement in Sport Scale, MDS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이탈을 평가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맞게 3문항을 추가하여 1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료에서 얻은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이탈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원래 이 척도는 7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른 척도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5점 Likert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규칙위반은 양값음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덕적 이탈 문항 중 6문항이 제거되어 총 5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카이제곱 값을 제외한 Q값,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값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chi^2=10.290$, $df=5$, $p=.067$, Q값=2.058, TLI=.973, CFI=.986, RMSEA=.067).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82$ 으로 나타났다.

표 5. 도덕적 이탈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 인	문 항	요인적재치 1	공통분
도덕적 이탈	8. 모든 선수들이 반칙을 한다면 내가 반칙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828	.686
	11. 반칙이 상대에게 아무런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반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810	.655
	10. 어떤 선수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칠게 대해줘야 한다.	.760	.578
	7. 우리팀 동료들을 욕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을 해도 괜찮다.	.754	.568
	3. 심판에게 대드는 것이 우리 팀에 유리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670	.449
KMO의 표본적합도=.832	고유치	2.93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392.501	공통분산%	58.716	
df=10, p<.000	누적분산%	58.716	
Cronbach’s Alpha		.821	

4) 반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척도는 Kavussanu와 Boardley(2009)가 개발한 친사회적, 반사회적 스포츠행동 척도(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Scale, PABSS)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팀 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5문항), 상대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8문항)을 측정할 수 있으며, 팀 동료에 대한 행동은 특성상 전부 언어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선수에 대한 행동은 언어적, 신체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스포츠행동 문항만을 번안하여 상대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8문항과 본 연구에 맞게 5문항을 추가하여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에서 얻은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나는 고의로 상대선수에게 반칙을 한 경험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많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반사회적 문항 중 2문항이 제거되어 총 11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카이제곱 값을 제외한 Q값,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chi^2=87.945$, $df=41$, $p=.000$, Q값 =2.145, TLI=.949, CFI=.962, RMSEA=.070).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91$ 으로 나타났다.

표 6. 반사회적 행동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 인	문 항	요인적재치 1	공통분	
반사회 적 행동	9. 나는 심판 몰래 상대선수에게 반칙을 하였다.	.802	.644	
	6. 나는 고의로 경기 규칙을 어긴 적이 있다.	.770	.592	
	5. 나는 의도적으로 상대선수를 괴롭힌 적이 있다.	.776	.587	
	12. 나는 심판 판정에 거칠게 항의한 적이 있다.	.748	.559	
	10. 나는 상대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743	.552	
	2. 나는 상대선수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시도하였다.	.725	.526	
	11. 나는 넘어진 선수를 가격한 적이 있다.	.722	.521	
	7. 나는 상대선수가 반칙을 한 후에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	.698	.487	
	13. 나는 상대방과 코치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나간 적이 있다.	.687	.472	
	1. 나는 고의로 상대선수에게 반칙을 한 경험이 있다.	.669	.448	
	8. 나는 상대선수를 비난한 적이 있다.	.646	.418	
	KMO의 표본적합도=.922		고유치	5.8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1268.809		공통분산%	52.782
df=55 p<.000		누적분산%	52.782	
Cronbach's Alpha			.909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1월 26일 ~ 2월 2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는 시합장 및 훈련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독 및 코치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질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 요령 등의 부차적인 설명과 성실한 응답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참여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질문지를 완료하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237부였으며, 완성된 질문지는 바로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처리

자료처리는 SPSS 18.0, PROCESS for SPSS(V.2.13),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셋째, 동기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도덕적 이탈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Sobel test(Aroian version)와 Preacher와 Hayes(2012)가 제시한 PROCESS for SPSS(V.2.13) 방법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Sobel test에는 3가지 검증방식(Sobel, Aroian, Goodman version)이 있는데, Sobel test version에서는 매개변수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표준오차의 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효과가 작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충족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표준오차의 곱항을 매개변인 검증공식에 투입한 Aroian version(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Sheets, 2002)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Aroian Test 공식은 다음과 같다.

$$Z_{ab} = \frac{ab}{\sqrt{SEa^2 \cdot SEb^2 + b^2 \cdot SEa^2 + a^2 \cdot SEb^2}} \quad (\text{공식 1})$$

(공식 1)에서,

a: 독립변수 → 매개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 매개변수 → 종속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SEa²: 독립변수 → 매개변수의 표준오차

SEb²: 매개변수 → 종속변수의 표준오차를 가리킨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많이 활용되어온 Sobel 검증의 경우, 간접효과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표본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여 통계적 검증력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일종의 통계적 모의실험 절차를 통하여 대규모의 가상적 무선 표본을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의 존재가 통계적 무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Shrout & Bolger, 2002). 따라서 Sobel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으로 재 추출된 표본수는 5,000개로 정하였고,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수행분위기는 반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숙달 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숙달 분위기 요인은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반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이탈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사회적 행동은 도덕적 이탈과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친사회적 행동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은 도덕적 이탈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술통계량을 보면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행 분위기,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준편차에서는 친사회적 행동, 숙달분위기가 낮게 나타났으며, 수행분위기, 반사회적 행동, 도덕적 이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동기분위기,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및 도덕적 이탈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수행 분위기	숙달 분위기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도덕적 이탈
수행 분위기	1				
숙달 분위기	-.331**	1			
반사회적 행동	.320**	-.241**	1		
친사회적 행동	-.132*	.522**	-.340**	1	
도덕적 이탈	.277**	-.133*	.562**	-.215**	1
M	2.63	3.75	2.21	3.59	2.39
SD	.73	.57	.74	.54	.77

*p<.05, **p<.01

<표 7>의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각 변인간의 상관이 유의미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매개효과 검증에 위한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Sobel test(Aroian version)절차와 Preacher와 Hayes(2012)가 제시한 PROCESS for SPSS(V.2.13)를 이용하여 동기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절차는 3개의 위계적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는데, 매개효과를 입증하려면 다음의 3가지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1 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2 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3 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두 번째 단계에서 관찰된 영향력보다 감소하여야 한다. 이상 3가지 조건을 충족한 뒤 3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으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잔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를 Y축, 독립변수 값을 X축으로 하여 Scatter Plot을 작성하였을 때 평균값 0을 중심으로 무작위적으로 흩어져 있으므로 선형회귀분석이 적합하다는 선형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정규분포의 가정도 충족되었으며, 표준화된 잔차를 Y축, 표준화된 예측치를 X축으로 산점도를 작성한 결과 그 형태가 평균값 0을 중심으로 같은 크기로 무작위적으로 흩어져 보이기 때문에 회귀모형의 가정인 동분산성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점검한 Durbin-Watson의 D통계량도 2.0에 가까워 자기상관 관계(autocorrelation)가 없으므로 잔차가 서로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가설 검증

1) 수행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가설 1의 검증)

수행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8>이다. 먼저 수행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도덕적 이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수행분위기는 도덕적 이탈($Beta=.277, p<.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수행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수행분위기는 반사회적 행동($Beta=.320, p<.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수행분위기와 도덕적 이탈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수행분위기는 반사회적 행동($Beta=.178,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덕적 이탈은 반사회적 행동($Beta=.512, p<.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수행분위기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Beta=.320$)보다 세 번째 단계($Beta=.178$)에서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행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수행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계수 값인 .14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Aroian version)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Aroian 방식으로 Sobel 검증을 한 결과 Z값이 4.00로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0681과 .2237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행분위기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수행분위기가 도덕적 이탈수준을 높이고, 이것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 또한 유의하므로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가 <그림 3>이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8. 수행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경로	B	S.E	Beta	t(p)	R ²	F
1	수행분위기 → 도덕적 이탈	.292	.066	.277	4.412(.000)	.077	19.467
2	수행분위기 → 반사회적 행동	.322	.062	.320	5.178(.000)	.102	26.813
3	수행분위기 → 반사회적 행동 도덕적 이탈 → 반사회적 행동	.179	.055	.178	3.238(.001)	.345	6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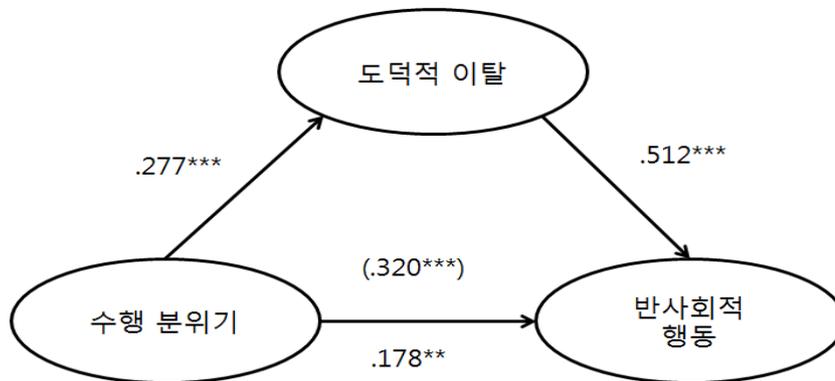


그림 3. 수행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모형

2)수행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가설 2의 검증)

수행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9>이다. 선행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이용하여 먼저 수행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도덕적 이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수행분위기는 도덕적 이탈($Beta=.277, p<.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수행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수행분위기는 친사회적 행동($Beta=-.132, p<.042$)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두 번째 단계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단계로서 수행분위기와 도덕적 이탈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수행분위기는 친사회적 행동($Beta=-.078, p>.237$)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덕적 이탈은 친사회적 행동($Beta=-.193, p<.004$)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수행분위기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계수 값인 $-.053$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Aroian version)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Aroian 방식으로 Sobel 검증을 한 결과 Z값이 -2.40 로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1109$ 과 $-.0163$ 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수행분위기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수행분위기가 도덕적 이탈수준을 높이고, 이것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분위기가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므로 완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가 <그림 4>이다. 따라서 가설 2은 지지되었다.

표 9. 수행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경로	B	S.E	Beta	t(p)	R ²	F
1	수행분위기 → 도덕적 이탈	.292	.066	.277	4.412(.000)	.077	19.467
2	수행분위기 → 친사회적 행동	-.098	.048	-.132	-2.040(.042)	.017	4.162
3	수행분위기 → 친사회적 행동	-.058	.049	-.078	-1.185(.237)	.052	6.399
	도덕적 이탈 → 친사회적 행동	-.135	.046	-.193	-2.916(.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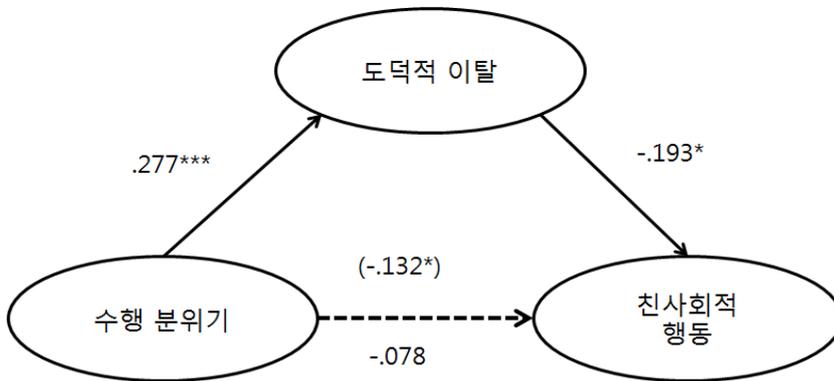


그림 4. 수행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모형

3)숙달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가설 3의 검증)

숙달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10>이다. 선행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이용하여 먼저 숙달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도덕적 이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숙달분위기는 도덕적 이탈($Beta = -.133, p < .04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숙달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숙달분위기는 반사회적 행동($Beta = -.241, p < .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숙달분위기와 도덕적 이탈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숙달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Beta = -.170, p < .002$)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덕적 이탈이 반사회적 행동($Beta = .539, p < .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숙달분위기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Beta = -.241$)보다 세 번째 단계($Beta = -.170$)에서 감소하였기 때문에 숙달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숙달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계수 값인 $-.07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Aroian version)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Aroian 방식으로 Sobel 검증을 한 결과 Z값이 -1.99 로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1417$ 과 $-.0087$ 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숙달분위기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숙달분위기가 도덕적 이탈수준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달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 또한 유의하므로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가 <그림 5>이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표 10. 숙달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단계	경로	B	S.E	Beta	t(p)	R ²	F
1	숙달분위기 → 도덕적 이탈	-.182	.089	-.133	-2.057(.041)	.018	4.230
2	숙달분위기 → 반사회적 행동	-.315	.083	-.241	-3.811(.000)	.058	14.527
3	숙달분위기 → 반사회적 행동	-.221	.070	-.170	-3.174(.002)	.344	61.312
	도덕적 이탈 → 반사회적 행동	.514	.051	.539	10.09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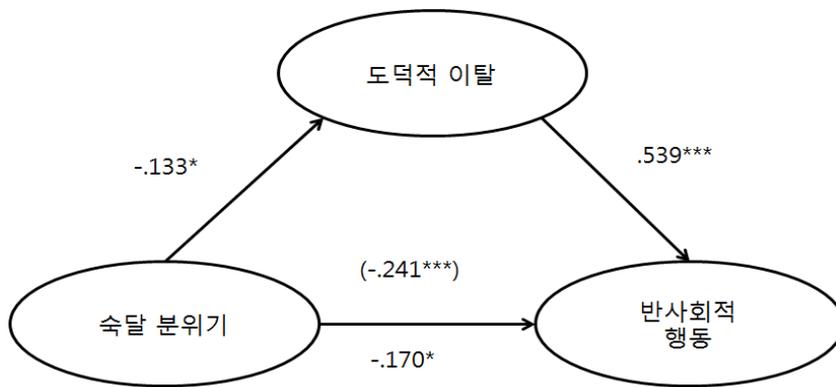


그림 5. 숙달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모형

4)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가설 4의 검증)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1>이다. 선행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이용하여 먼저 숙달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도덕적 이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숙달분위기는 도덕적 이탈($Beta = -.133, p < .04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숙달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숙달분위기는 친사회적 행동($Beta = .522, p < .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숙달분위기와 도덕적 이탈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숙달분위기는 친사회적 행동($Beta = .502, p < .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덕적 이탈은 친사회적 행동($Beta = -.104, p < .008$)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숙달분위기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Beta = .522$)보다 세 번째 단계($Beta = .502$)에서 감소하였기 때문에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숙달분위기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계수 값인 $-.0197$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Aroian version)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Aroian 방식으로 Sobel 검증을 한 결과 Z값이 1.56 으로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0019$ 과 $.0555$ 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숙달분위기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숙달분위기가 도덕적 이탈수준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달분위기가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 또한 유의하므로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가 <그림 6>이다. 따라서 가설 4은 지지되었다.

표 11.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단계	경로	B	S.E	Beta	t(p)	R ²	F
1	숙달분위기 → 도덕적 이탈	-.182	.089	-.133	-2.057(.041)	.018	4.230
2	숙달분위기 → 친사회적 행동	.501	.053	.522	9.379(.000)	.272	87.961
3	숙달분위기 → 친사회적 행동	.482	.053	.502	9.061(.000)	.294	48.699
	도덕적 이탈 → 친사회적 행동	-.104	.039	-.148	-2.67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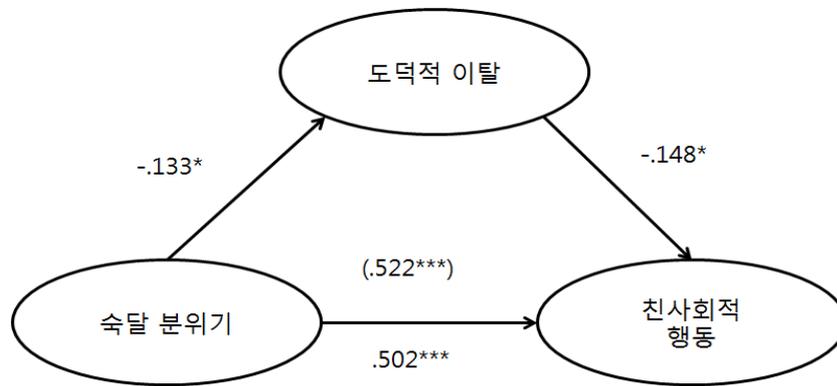


그림 6.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모형

V. 논의

현대사회에서의 스포츠는 경쟁을 통해 승리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승리는 곧 성공이고, 패배는 곧 실패이다. 따라서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동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 스포츠이다. 이기기 위해 경기규칙을 어기고, 심판 몰래 반칙을 하면서까지 이기려고 하는 승리지상주의가 왜 일어나는지 여러 학자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선수들은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행동한다. 자신의 목표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려 할 것이고, 목표가 성장이나 노력이라면 경기에서 정정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실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전자를 자아목표성향, 후자를 과제목표성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목표성향에서 파생된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는 동기분위기가 있다. 동기분위기는 숙달분위기와 수행분위기로 나누어지는데, 숙달분위기는 자신의 과제숙달과 노력 등이 성공을 의미하며, 수행분위기는 개인 간의 경쟁에서의 승리를 성공으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 입각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두 개의 상이한 동기분위기, 즉 수행분위기와 숙달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었으며, 동기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차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먼저 두 국면의 동기분위기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행분위기와 숙달분위기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기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기분위기 하위 요인인 수행분위기(performance climate)는 반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친사회적 행동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나타내 보이려는 성향 즉, 상대방과의 경쟁, 규준적 피드백, 공적인 평가를 강조한 수행분위기 성향을 가진 선수들은 경기규칙을 위반하고 승리를 위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도덕적인 면을 중요시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동기분위기 하위요인인 숙달분위기(mastery climate)는 반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부(-)의 상관을 보였고, 친사회적 행동과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자신의 기능향상이나 개인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는 숙달분위기 선수

들이 도덕적인 면을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숙달분위기가 선수들의 운동몰입, 최선, 상대존중, 동료배려, 팀 정신, 결과 인정, 판정 존중을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승부집착에 부정적으로 예측한 박중길(2009)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동기분위기와 매개변인인 도덕적 이탈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수행분위기는 도덕적 이탈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숙달 분위기는 도덕적 이탈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동기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분석 메커니즘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매개효과 검증뿐만 아니라 동기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덕적 이탈이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차원의 동기분위기와 매개변인 및 결과변인에 대한 분석 모두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기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선행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가 약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동기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도덕적 이탈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보일 것인지 규명함으로써 동기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도덕적 이탈이 동기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효과를 유발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분석은 수행분위기→도덕적 이탈→반사회적 행동, 수행분위기→도덕적 이탈→친사회적 행동, 숙달분위기→도덕적 이탈→반사회적 행동, 숙달분위기→도덕적 이탈→친사회적 행동 순으로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수행분위기는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반사회적 행동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변인 도덕적 이탈도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행분위기가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 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이탈은 수행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사이에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목표성향이 반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이탈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 이탈이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에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난 김선욱, 양명환 (2013)의 연구와 Boardley & Kavussanu, (2010)의 연구결과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수행분위기는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 이탈도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행분위기가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이탈은 수행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 사이에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선수들이 지각하는 분위기가 수행분위기라면 시합상황에서 상대방보다 더 나은 수행을 하기 위해 경기규칙을 어기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스포츠퍼슨십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동을 습관화 한다는 Kavussanu 등 (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숙달분위기는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 이탈에도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매개변인 도덕적 이탈은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숙달분위기가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 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이탈이 숙달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사이에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에 부적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Boardley & Kavussanu, 2010; Kavussanu, 2006; Sage & Kavussanu, 2007)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숙달분위기는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 이탈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도덕적 이탈은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숙달분위기가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이탈이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 간에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수들이 지각하는 분위기가 숙달분위기라면, 시합상황이나 연습상황 중에 목표를 자신의 기능 향상이나 개인적인 발전에 중심을 두며, 도덕적 기능을 중시하여 스포츠퍼슨십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목표성향이 최선, 상대존중, 동료배려, 그리고 판정존중 등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김명훈 등(2011)의 연구와 이성철 등 (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각된 분위기가 수행분위기라면 낮은 도덕적 기능을 예측하고 지각된 분위기가 숙달분위기라면 보다 성숙된 도덕성을 예측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Gano-Overway et al., 2005; Guivernau & Duda, 2002; Ommundsen et al., 2003; Shields et al., 2007; Stornes, 2001; Tsai & Fung, 2005).

구체적으로 노르웨이 남자 청소년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동기분위기, 스포츠 퍼슨십, 사회적-도덕적 기능 그리고 팀 규범 간의 관계를 조사한 Ommundsen, Roberts, Lemyre, & Treasure(2003)의 연구에서는 동기분위기가 숙달 지향적이라고 지각한 선수들은 보다 성숙한 수준의 사회적-도덕적 이성을 갖고 있으며, 보다 나은 스포츠퍼슨십 행동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선수들은 비도덕행동을 보고할 경향이 적으며, 공격성 찬동을 강하게 불인정하는 것을 팀의 규범으로 지각하였다. 반면, 동기분위기를 수행 지향적이라고 지각하는 선수들은 축구에서 비도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스포츠퍼슨십 행동을 덜 표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동기분위기의 차별적인 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Miller, Roberts & Ommundsen(2005)은 수행분위기 지각은 전체적인 낮은 스포츠 도덕성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숙달분위기 지각은 훨씬 성숙한 도덕적 이성과 낮은 도덕적 행동을 불인정하는 코치가 결정한 도덕적 분위기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들의 결과는 경쟁적인 청소년 스포츠에서 코치가 유발한 수행분위기를 높게 지각하면 할수록 도덕적 기능은 점점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확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는데서 의의를 갖는다. 스포츠 선수들은 관습에 거스르는 행동의 압력에 노출되어있다. 예를 들어, 코치나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압력이 있을 때, 선수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합에서 규칙을 어기고 반칙을 하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성향이 과제중심의 성향이라면 경기에서 패배하더라도 과정을 중시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기분위기 구인을 사용하여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선수들이 지각하는 분위기가 수행분위기라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숙달분위기를 지각하면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그리고 김선욱, 양명환(2013)의 연구에서도 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

다. 즉, 자신이 가지는 성향에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차이를 규명하고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동기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변인 역할을 규명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학문에 비해 체육학 분야에서는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다른 분야 특히, 사회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도덕성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즉, 운동선수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도덕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비도덕적 행위로 야기되는 거짓말, 속임수, 규칙위반, 그리고 불공정한 행동 등이 스포츠상황에서는 스포츠의 특성상 승리를 위해 행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묵인될 수밖에 없다(문창일 등, 2011). 따라서 체육학 전공자와 스포츠현장의 코치 및 감독 등 체육관련 종사자들이 학교수업상황이나 시합상황을 중심으로 도덕성 및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꼼꼼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으로서 많은 연구가 나타나야 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 과정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과 추후 연구과제에 대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중·고·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많은 종목들과 프로팀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측정도구에서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도덕적 이탈들은 다차원적인 구조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단일차원으로 분석한 점 또한 추후연구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매개변인인 도덕적 이탈 변인은 Boardley와 Kavussanu(2007)가 개발한 척도에서는 32문항 6요인(행위재구조화, 유리한 비교, 책임회피, 결과왜곡, 비인간화, 비난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요인들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이탈이 동기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지만 추후연구에서는 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동기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중·고·대학교 운동선수 237명이었으며, 측정도구로는 다차원 스포츠퍼슨십 성향척도, 동기분위기 지각 척도(PMCSQ-2), 간편형 스포츠 도덕적 이탈 척도, 반사회적 스포츠행동 척도를 통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였다. SPSS 18.0, PROCESS for SPSS(V.2.13),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동기분위기의 하위 요인인 수행분위기는 도덕적 이탈과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친사회적 행동과 숙달분위기에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숙달분위기는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반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이탈에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수행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수행분위기는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도덕적 이탈을 통해서도 반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수행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수행분위기는 도덕적 이탈을 통해서만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숙달분위기와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숙달분위기는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도덕적 이탈을 통해서도 반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숙달분위기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숙달분위기는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도덕적 이탈을 통해서도 친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문헌

- 곽금주 (1998). 자기효능감과 도덕적이탈(I): 연령에 따른 변화. **한국심리학회: 발달**, 11(1), 1-11.
- 구창모(1991). 체육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4호.
- 권석만(2006).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 김경연, 하영희 (2003). 죄책감, 도덕적 이탈 및 친구의 규칙위반성향과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 **한국심리학회: 발달**, 16(2), 39-52.
- 김관훈(1988). 운동선수의 비행요인에 관한 경로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기(2001). 스포츠이탈의 원인 및 유형의 이론체계. **체육연구**, 15, 97-114.
- 김명훈, 송용관, 박진훈(2011).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 기본 심리적 욕구와 스포츠퍼슨십 간의 관계. **코칭능력개발지**, 13(4), 41-53.
- 김병준(2001). 목표성향으로 예측한 스포츠재미와 스트레스.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125-140.
- 김선욱, 양명환(2013). 태권도와 축구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2(1), 163-174.
- 김선정(2014).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과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 간의 관계 : 지각된 학급규모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양(2010).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의 모색. **한국사회정책** 16(2).
- 김중선(2005). 스포츠맨십과 학교적응의 관계: 학교운동부와 일반학생의 비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태련, 이경숙(1992). 반사회적 아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1): 14-25.
- 김현경(2008). 무용연습에서 동기분위기 지각과 목표성향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3), 61-73.
- 노승현(2011). 대학생의 도덕적 이탈 및 자아정체감이 사이버 일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윤제(2005).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성취 목표 성향과 동기 분위기 지각이 동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6(2), 33-48.

문창일, 박철수, 최영욱(2011). 지각된 동기 분위기가 도덕적 기능, 팀 규준, 스포츠맨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6(2).

박영기(2012). 초등학교 댄스스포츠참여자의 운동가치인식과 사회적지지에 따른 동기분위기 및 성취목표성향과 참여만족 간 인과분석. **한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영신, 김의철(2001a).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2), 25-52.**

박영신, 김의철(2001b).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6).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심리특성 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45-76.**

박종률(2003). 체육수업을 통한 고등학생의 스포츠맨십 인식 변화. **한국체육학회지, 42(3).**

박종길(2009). 능력믿음과 목표성향, 지각된 유능감 및 무용 내적 동기간 인과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1), 165-184.**

부기원, 조명렬(1988). 스포츠사회학의 기초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2). 『교육학 용어사전』. 도서출판 하우.

성창훈(2003). 청소년 운동참가자들의 스포츠맨십 측정도구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2).**

성창훈, 김원배(2000). 스포츠맨십 행동의 개념화 시도(1): Vallerand 의 다차원적 스포츠맨십 구조 타당성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1(1), 141-154.**

양명환(2002). 제주도민의 해양레저스포츠 의식과 참여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7(3).**

양명환(2003). 스포츠맨십성향, 운동태도 및 성격 특성간의 관계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 8(3), 69-91.**

양명환, 김덕진, 김기윤, 김소연, 부귀현, 문경남, 부공민(2005).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각하는 스포츠맨십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9(4).**

유진(1994).스포츠 성취목표 지향성과 동기 분위기가 내적 동기, 자긍심, 운동수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 8(1), 69-85.**

유진(1997). 스포츠 성취목표 지향성과 동기 분위기가 내적동기, 자긍심, 운동수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8(1). 69-85.**

유진, 박성준(1995). 스포츠 성취목표 지향성 이론의 현장 실험적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33, 14-27.**

- 유진, 허정훈(2001). 체육 성취목표지향성과 동기분위기 지각이 내적동기와 운동수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109-123.
- 윤여운(1998).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의 딜레마 유형에 따른 아동들의 도덕성 판단의 비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혜(2014). 대학 운동선수들의 훈련 동기 분위기 지각과 심리 기술의 관계.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노(1980). 성격 및 적응지도의 새로운 접근: 성리학과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학생지도연구**, 1(1).
- 이성철, 하성일(2013). 방과 후 축구교실 참여 학생의 과제목표성향과 우리성 및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7(3).
- 이양희, 민수현, (2001). 반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개발 연구. **미래유아학회지**, 8(1).
- 이연호(1987). 아동의 반사회적 문제 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이종향(2006). 문제해결 움직임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변장(1987). “스포츠 참여와 정치 태도의 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적 연구.”, 연구논총, **서울올림픽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 임변장(2000). 스포츠사회학개론. 서울: **동화문화사**.
- 임석원(2003).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의 윤리적 정당화와 규범체계의 음미: 룰랜드의 페어플레이에 대한 도덕 규범체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봉해(2005). 청소년 스포츠 참가자의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맨십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6(3), 173-186.
- 정영린(1987). 스포츠참여와 청소년 비행에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조수연, 신미진, 엄혁주(2009).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성과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와 지각된 동기 분위기 차이. **스포츠문화·과학연구지**, 15(15) 23-31.
- 한이석(2004). 스포츠 일탈. **형설 출판사**.
- 한정은(2010). 교사폭력이 학생의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훈(1998). 수업분위기 지각이 유능감과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es, C. (1992), Achievement goals and the classroom motivational climate, In G. C. Roberts (Ed),

-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pp161~176)*, Champaign, IL: Human Kinetic.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61-271.
- Ames, C., & Archer, J. (1987). Mothers' belief about the role of ability and effort in school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409-414.
- Andrew F., Hayes. (2014). The PROCESS macro for SPSS and SAS(version, 2.13.)
www.afhayes.com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Vol. 1*, pp. 71-129. Hillsdale, NJ: Erlbaum.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374.
- Barkoukis, V., Ntmoumani, C., Ntoumanis, N., & Nikitaras, N. (2007). Achievement goals in physical education: Examining the pre-dictive ability of five different dimensions of motivational climate.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3*(3), 267-28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tali, D., Zaxariadis, P., Adramerinos, N., & George, G. (2005). Study of aggressiveness in second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Relation to goal orientations & sportpersonship orientation. *Hellenic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 Sport Science, 56*, 20-33.
- Boardley, I. D., & Kavussanu, M.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oral Disengagement in Sport Scal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9*, 608-628.
- Boardley, I. D., & Kavussanu, M. (2010). Effects of goal orientation and perceived value of toughness on antisocial behavior in soccer: The mediating role of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2*, 176-192.
- Boardley, I. D., & Kavussanu, M. (2008). The Moral Disengagement in Sport Scale-Short. *Journal of Sport Sciences, 26*, 1507-1517.

- Bredemeier, B. J. (1999). Character in action: The influences of moral atmosphere on athletes' sport behavior. In R. Lidor, & M. Bar-Eli(Eds.), *Sport Psychology: Linking theory and practice*. pp. 247-259. Morgantown: Fitness Information Technology.
- Duda, J. L. (2001). Goal perspective research in sports: Pushing the boundaries and clarifying some misunderstandings. In G. Roberts (Ed.), *Advances in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pp. 129-182.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Duda, J. L., & White, S. A. (1992). Goal orientation and beliefs about the causes of sport success among elite skiers. *The Sport Psychologist*, 6, 334-343.
- Duda, J. L., Olson, L. K., & Templin, T. J. (1991). The relationship of task and ego orientation to sportsmanship attitudes and the perceived legitimacy of injurious act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2(1), 79-87.
- Dunn, J. G. H., & Dunn, J. C. (1999). Goal orientations, perceptions of aggression, and sportpersonship in elite male youth ice hockey players. *The Sport Psychologist*, 13, 183-200.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 of pro 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Fabes RA, Spinrad TL.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Eisenberg N, Damon W, editor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ition Wiley; New York, Vol. 3, pp. 646-718.
- Gano-Overway, L. A., Guivernau, M., Magyar, T. M., Waldron, J. J., & Ewing, M. E. (2005). Achievement goal perspectives, perceptions of motivational climate, and sportpersonship: Individual and team effect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6, 215-232.
- Guivernau, M., & Duda, J. L. (2002). Moral atmosphere and athletic aggressive tendencies in young soccer player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3, 37-54.
- Guiverneau, M., & Duda.(1998). Integrating concepts of motivation and the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th prediction of athletic aggression.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0, S13
- Hayes, A. F. & Preacher, K. J. (2012).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with a multi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Hinshaw, S. P., Anderson, C. A. (1996). Conduct and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s, In E. J. Mash & R. A. Barkley(Eds.), *Child Psychopathology* 113-149.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Joyner, K., & Kummery, K. (2005). Influences on sportspersonship orientations: Contextual and motivational. *Youth Studies Australia, 24*(1), 48-53.
- Kavussanu, M. (2006). Motivational predictors of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ur in football. *Journal of Sport Sciences, 24*, 575-588.
- Kavussanu, M., & Boardley, I.D. (2009). Th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Scal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1*, 97-117.
- Kavussanu, M., & Roberts, G. C. (1996). Motivation in physical activity contexts: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to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8*, 264-280.
- Kavussanu, M., & Roberts, G. C. (2001). Moral functioning in sport: An achievement goal perspectiv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3*, 37-54.
- Kavussanu, M., Seal, A. R., & Phillips, D. R. (2006). Observed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s in male soccer teams: Age differences across adolescence and the role of motivational variable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8*, 1-19.
- Keating, J. W. (1964). Sportsmanship as a Moral Category. *Journals Chicago, 73*(1) 25-35.
- Kim, U. & Park, Y. S. (2006).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al cultures: The role of self, relati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F. Pak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pp.267-285).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Kleiber, D. A., & Roberts, G. C. (1981) The effects of sport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haracter: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ournal of Sports & Exercise Psychology, 3*, 114-122.
- Kohn, A. (1986). No contest: The case against competition. *Boston: Boughton Mifflin*.
- Lee, M. J., Whitehead, J., Ntoumanis, N., & Hatzigergiadis, A. (2008). Relationships among values, achievement orientations, and attitudes in youth spor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0*, 588-610.
- Loeber, R., and Dishion, T. (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 69-69.
- Long, T., Pantaleon, N., Bruant G., & d'Arripe-Longueville, F. (2006). A qualitative study of moral reasoning of young elite athletes. *The Sport Psychologist, 20*, 330-347.
- Long, T., Pantaleon, N., Bruant G., & d'Arripe-Longueville, F. (2006). A qualitative study of moral

- reasoning of young elite athletes. *The Sport Psychologist*, 20, 330-347.
- Lucidi, F., Zelli, A., Mallia, L., Grano, C., Russo, P. M., & Violani, C. (2008). The socialcognitive mechanisms regulating adolescents' use of doping substances. *Journal of Sport Sciences*, 26, 447-456.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 *Psychological Methods*, 7, 83-104.
- Merton, R. K.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Miller, B. W., Roberts, G. C., Ommundsen, Y., (2005). Effect of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on moral functioning, team moral atmosphere perceptions, and the legitimacy of intentionally injurious acts among competitive youth football player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6(4), 461-477.
- Morgan, K., & Carpenter, P. (2002). Effects of manipulating the motivational climate in physical education lessons.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8(3), 207-229.
- Newton, M., & Duda, J. L. (1999) The Interaction of Motivational Climate, Dispositional Goal Orientations, and Perceived Ability in Predicting Indices of Moti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0(1).
- Newton, M., Duda, J. L., & Yin, Z. (2002). Examin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2. *Journal of Sport Sciences*, 18, 275-290.
- Newton, M., Duda, J. L., & Yin, Z. N. (2000). Examin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2 in a sample of female athletes. *Journal of Sports Sciences*, 18(4), 275-290.
- Nicholls, J. G. (1989). The competitive ethos and democratic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toumanis, N. (2002). Motivational clusters in a sample of British physical education class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3, 177-194.
- Ommundsen, Y. (2006). Pupils' self-regulation in physical education.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2(3), 289-314.
- Ommundsen, Y., & Roberts, G. C., & Lemyre, P. N., & Treasure, D. (2003). Perceived motivational

- climate in male youth soccer: relations to social -moral functioning, sportsmanship and team norm perception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4, 397-413.
- Orlick, T. (1978). *Winning through cooperation: Competitive insanity, cooperative alternatives*. Washington, DC: Acropolis Press.
- Paciello, M., Fida, R., Tramontano, C., Lupinetti, C. & Caprara, G. V.(2008). Stability and change of moral disengagement and its impact on aggression and violence in late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9(5), 1288-1309.
- Papaioannou, A. & Diggelidis, N. (1996). Developmental difference in students' motivational climate and perceptions of self in Greek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8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ichard M. Lerner & Laurence Steinberg. (2004).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Second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 Roberts, G. C. (1992). Conceptual Constraints and Convergence. In G. C. Roberts, *Motivation in Sports and Exercise*, p.3-30.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Roberts, G. C. (1992a).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Conceptual constraints and conceptual convergence. In G. C. Roberts (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3-30.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Roberts, G. C. (2001).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motivation in physical activity: The influence of achievement goals, personal agency beliefs, and the motivational climate. In G. C. Roberts (Ed.), *Advances in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p. 1-50.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Roberts, G. C. (2002).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Conceptual constraints and conceptual convergence. In G. C. Roberts(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p. 3-30.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Rudisill, M. E., Meaney, K. S., McDermott, B. A., & Jibaja-Rusth, M. (1990). Influences of various goal-setting orientations on children's persistence and perceived competence in three meetings of the North American Sport and Physical Activity, *University of Houston*.
- Sage, L., & Kavussanu, M.(2007). Multiple goal orientations as predictors of moral behavior in youth soccer. *The Sport Psychologist*, 21, 417-437.

- Sage, L., & Kavussanu, M. (2008). Goal orientations, motivational climate, and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ur in youth football: Exploring their temporal stability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Journal of Sport Sciences, 26*, 717-732.
- Sage, L., & Kavussanu, M., & Duda, J. L. (2006). Goal orientations and antisocial functioning in male association football players. *Journal of Sport Sciences, 24*, 455-466.
- Shields, D. L., & Breademeier, B. J. L. (1995). Character development and physical activity.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Shields, D., Breademeier, B., LaVoi, N., & Power, F. C. (2005). The sport behavior of youth, parents, and coaches: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Research in Character Education, 3*, 43-59.
- Shields, D., LaVoi, N., Breademeier, B., & Power, F. C. (2007). Predictors of poor sportspersonship in youth sports: Personal attitudes and social influence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9*, 747-762.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ary, C. (2002). Motivational climate and perceived strategies to sustain pupil's discipline in physical education.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8*(1), 5-20.
- Standage, M., Duda, J. L., & Ntmoumanis, N. (2003). A model of contextual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Using constructs from self-determination and achievement goal theory to predict physical activity inten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 97-110.
- Stornes, T. (2001). Sportspersonship in elite sports: on the effects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display of sportspersonship among elite male handball players.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7*(3)
- Todd, D., & Hodge, K. (2001). Moral reasoning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sport: A qualitative inquiry. *Journal of Sport Behavior, 23*, 307-327.
- Todorovich, J. R. (2008). Influence of the motivational climate in physical education on sixth grade pupils: goal orientations.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8*(2), 119-138.
- Treasure, D. C. (1997). Perception of the Motivation Climate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Cognitive and Affective Respons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9*, 278-290.

- Treasure, D. C., & Roberts, G. C. (1994). Cognitive and affective concomitants of task and ego goal orientations during the middle-school year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6*, 15-28.
- Treasure, D. C., & Roberts, G. C. (1995). Applications of achievement goal theory to physical education. *Quest, 47*, 475-489.
- Treasure, D. C., & Roberts, G. C. (1989). *Perceptual and Motor Skill, 79*, 607-610.
- Tsai, E., & Fung, L. (2005). Sportspersonship in youth basketball and volleyball players. *Athletic Insight, 7*(2), 37-46.
- Vallerand, R. J., Briere, N. M., Blachard, C., & Provencher, P. (19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portspersonship Orientation Scal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9*, 197-206.
- Vallerand, R. J., Deshaies, P., Cuerrier, J. P., Briere, N. M., & Pelletier, L. G. (1996). Toward a multidimensional definition of sportsmanship.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8*, 89-101.
- Vallerand, R. J., Deshaies, P., Cuerrier, J. P., Briere, N. M., & Pelletier, L. G. (1997). Toward a multidimensional definition of sportsma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8*, 126-140.
- Vallerand, R. J., & Losier, G. F. (1994). Self-determined motivation and sportsmanship orientations: An assessment of their temporal relationship.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6*, 229-245.
- Vazou, S., Ntoumanis, N., & Duda, J. L., (2006). Predicting young athletes' motivational indices as a function of their perceptions of the coach- and peer-created climat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 215-233.
- Walker, H. M., Severson, H. H., & Feil, E. G. (1995). Early screening project: A proven child-find process. *Longmont, CO: Sopris West*.
- Walsh, H. D. (1980). *Intruding the child to the social world*. NY: Macmillan Pub, co, Inc.
- Wilson, P. M., & Rodgers, W.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utonomy support, exercise regula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s in wome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5*, 229-242.

<Abstract>

The Effect of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on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in Athletes :
Mediating Effect of Moral Disengagement

Kim, Seon Uk

Physical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Myung 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amine the effect of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on antisocial behavior and prosocial behavior in athletes, and whether these effects are mediated by moral engagement. 237 athletes who enrolled the Korea Sports Council(KSC) were responded to Multidimensional Sportspersonship Orientation Scale,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s Questionnaire, Simple Sports Moral Disengagement Scale, and Prosocial and Antisocial Sports Behavior Scale.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18.0, PROCESS for SPSS(V.2.13), AMOS 18.0, statistical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performance climate, one of the sub factor of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moral disengagement and antisocial behavior, while it was negatively related to prosocial behavior and mastery. On the other hand, the other sub factor of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mastery climate was positively related to prosocial behavior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antisocial behavior and moral disengagemen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climate and antisocial behavior was partially mediated by moral disengagement..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climate and prosocial behavior was fully mediated by moral disengagement.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mastery climate and antisocial behavior was partially mediated by moral disengagement.

Fifth,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climate and prosocial behavior was partially mediated by moral disengagement.

Ⅱ. 다음 문항은 스포츠 상황에서 자신의 스포츠퍼슨십 성향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실력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여러 차례 실수 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시합 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시합 시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비록 시합에 졌지만 상대선수를 축하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의 결과나 잘못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매 시합 결과에 승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판정오류 시에도 심판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심판의 잘못된 판정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문항은 현재 자신이 팀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전형적인 분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없다	없 는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많 은 편 이 다	매 우 많 다
1. 우리 팀 코치는 선수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시험해 보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팀 코치는 선수들이 실수 할 때 거의 미쳐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팀 코치는 스타선수에게 모든 신경을 쏟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팀의 개별 선수들은 나름대로 중요하게 팀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팀 코치는 우리 모두가 팀 성공에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팀 코치는 스타 선수들만이 팀 성공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팀 선수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였을 때 만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팀 선수들은 실수 때문에 게임에서 교체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팀 선수들은 기술수준에 관계없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팀 선수들은 서로 기술 익히는 것을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팀은 선수들이 동료선수들보다 잘하기를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팀 코치는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선수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팀 코치는 실수한 것 때문에 선수들에게 소리를 지른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팀 선수들은 자신들의 기량이 향상되었을 때 성공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팀에서는 스타선수들만이 칭찬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팀 선수들은 실수를 하였을 때 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팀에서 모든 선수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팀 코치는 선수들에게 서로 도와주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팀 선수들은 시합에서 팀 동료보다 잘했을 때 정신적으로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팀 코치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팀에서는 최고 수준의 선수들만이 코치의 주목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팀에서 선수들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팀 코치는 다른 선수들보다 특정선수들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팀의 목표는 매 시합이나 연습에서 잘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우리 팀 선수들은 실제로 한 팀에서 함께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우리 팀의 모든 선수들은 중요한 팀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7. 우리 팀 선수들은 잘하고 탁월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여러분이 운동상황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도덕적 이탈에 대해 측정하고자 합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일치되는 번호에 “✓” 를 표기에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규칙위반은 양갈음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폭력행동이 목적이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심판에게 대드는 것이 우리 팀에 유리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비신사적 전술에 단순 가담한 우리 팀 선수들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만약 코치가 부상 입히는 것을 목인하였다면 상대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우리선수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수들 간의 무례한 짓은 실제로 아무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팀 동료들을 욕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을 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8. 모든 선수들이 반칙을 한다면 내가 반칙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가끔씩 반칙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떤 선수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칠게 대해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반칙이 상대에게 아무런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반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 문항은 스포츠 상황에서 상대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이 지난 1년의 시합 중에 다음과 같은 행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없 는 편 이 다	보 통 이 다	많 은 편 이 다	매 우 많 다
1. 나는 고의로 상대선수에게 반칙을 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상대선수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시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대선수를 완전히 열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신체적으로 상대선수를 위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의도적으로 상대선수를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고의로 경기 규칙을 어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상대선수가 반칙을 한 후에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상대선수를 비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심판 몰래 상대선수에게 반칙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상대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넘어진 선수를 가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심판 판정에 거칠게 항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상대방과 코치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나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지금까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